

해군의 창설과 발전

金 州 植*

1. 머 리 말
2. 해군의 체제정립기(1945~1970)
3. 연안해군 건설기(1971~2000)
4. 지역해군 건설기(2000~현재)
5. 맺 음 말: 대양해군 건설을 위하여

1. 머 리 말

해군 60년사¹⁾를 한 편의 논문으로 서술하는 것은 장구한 기간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잡한 활동내용을 염두에 둘 때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분석시각과 분류기준에 따라 시대별 특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대구분이 역사 서술의 주요 작업이자 중요한 전제 작업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 국방부는 정부수립과 국군조직이 이루어진 1948년을 각 군이 창군된 것으로 보아 올해를 건군 60주년으로 간주하지만, 해군은 창설기념일을 1945년 11월 11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2008년은 해군 창설 63주년에 해당된다.

유 때문이다.

해군은 1978년에 30년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초창기→6·25전란기→발전기로 시대를 3분했다.²⁾ 또한 해군은 창군기('45~'50)→한국전쟁 및 전후 정비기('50~'72)→울곡사업기('72~'95)→대양해군 기반조성기('95~현재)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했다.³⁾ 오늘날 공식적인 해군 홈페이지는 창군기→한국전쟁기→전후정비기→파월 및 확장기→자주국방기→개혁 및 대양해군기로 6분하고 있다.⁴⁾ 일반인의 다른 한 웹문서는 창군기('45. 11~'50. 6. 24)→한국전쟁기('50. 6. 25~'53. 7. 27)→전후정비기('53. 7. 28~'65. 3. 3)→전력건설기('65. 3. 4~'74. 2. 24)→자주국방 기반조성기('74. 2. 25~'93. 5. 25)→개혁 및 대양해군 시발기('93. 5. 26~현재)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⁵⁾ 그밖에도 초창기('45~'53)→발전기('54~'75)→도약기('75~현재)로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근래에 나타나기도 했다.⁶⁾

이러한 시대구분들은 저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다양성과 각 부대의 특성을 고려한 긍정적인 모습과 시대구분이 해군 내에서조차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실례들은 파월 및 확장기,

2) 『海軍30年史』(海軍本部, 1978. 8).

3) 『해군상식 100문 100답』(해군전투발전단, 2004. 9), 『해군발전과정 구분』, pp. 21-26.

4) <http://www.navy.mil.kr/> 해군자료실)해군역사관)한국해군 50년사.

5) <http://report.empass.com/> [한국사] 한국 해군의 발전사.

6) 姜永五, "한국 海軍力 분석," *Strategy 21*, 2001년 7호(봄·여름호), pp. 130-135. 한편, 해군 예하부대들은 독자적인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교육사령부는 개척기('45~'55)→기반구축기('56~'86)→도약기('87~'05)→미래건설기('06~현재)로 시대를 구분하였다(『대한민국 해군 교육사 60년사』, 해군교육사령부, 2006. 1). 정훈감실은 창설기('48~'50)→한국전쟁기('50~'53)→전후 재편성기('53~'60)→성장과 정착기('60~'73)→자주국방기('73~'80)→선진해군기('80~'88)→대양해군 건설기('88~'99)로 구분했다(『반세기를 넘어서: 해군 정훈 50년사』,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1999. 12). 해군사관학교는 개척기('45~'52)→성장준비기('53~'72)→성년기('73~'95)→21세기 준비기('96 이후)로 시대를 구분했다(『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 해군사관학교, 1996. 4).

전력건설기, 개혁, 발전기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의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를 특정 시대에 국한시켜 사용하고 있어 보편타당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확장, 개혁, 증강, 발전, 성장, 자주국방은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될 수 없으며 예나 지금이나 혹은 미래에서조차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인 것이다. 그밖에도 정권을 기준으로 시대구분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해군사의 시대구분에 정치적 요소를 이용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시대구분 자체를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아주 크다.

일반적으로 해군의 유형은 연안해군(Coastal Navy), 지역해군(Regional Navy), 대양해군(Ocean-going Navy 혹은 Blue Water Navy), 세계해군(Global Navy)으로 구분된다.⁷⁾ 필자는 이러한 해군 유형에 따라 한국 해군의 60년사를 시대구분하려 한다. 왜냐하면 보편성을 띤 주장이 많은 호응과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해군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먼저 연표를 작성했는데, 대략적으로 작성한 연표라 하더라도 분량이 너무 많아 전체를 일별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필자는 연표를 여러 항목(전력·기구와 조직·작전과 훈련·교육과 인사·문화 등)으로 나눈 후 10년 간격으로 주요 내용만 간추려 표를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10년 간격 주요 활동표는 본고의 시대구분과 서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필자는 자료의 비공개와 필자의 신분상 제약에 따른 자료 수집과 확인의 고충으로 인한 불충분한 점이 본고에 많으며 또한 본고가 해군 당국의 공식적인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⁸⁾

7) Geoffrey Till, *Modern Navy: Introduction*, Brassey's Sea Power, No. 1(London: Potomac Books, 1987), p. 47; Ken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Holmes & Meier Publishers, 1979), pp. 120-121. 혹자는 대양해군과 세계해군을 동격으로 간주하여 '대양해군 혹은 세계해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황재연·김정환, 『현대 해군의 수상전 투함』, 서울: 군사연구, 2007. 10, pp. 22-23).

8) 필자는 해군 역사 중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왜냐하면 이 특

2. 해군의 체제정립기(1945~1970)

(1) 창군활동

한국 해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은 광복이 되자마자 일어났다. 광복을 맞이한 지 6일밖에 되지 않은 1945년 8월 21일 서울 거리에 해양수호에 뜻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벽보들이 나붙었으며, 같은 날 海事隊가 결성되었다. 해사대는 독자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재정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약 1개월간 建國準備委員會의 海事課에 소속되었다가 급진좌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탈퇴했다. 바로 그날 해사대는 선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존재했던 朝鮮海事報國團과 합쳐 朝鮮海事協會로 개명하였다. 그 후 이 협회는 미군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945년 11월 11일에 海防兵團으로 다시 개명되었다.⁹⁾

해방병단은 한국 해군의 모체가 되었으며,¹⁰⁾ 영어 표기는 해안경비대로 번역할 수 있는 Coast Guard였다. 8월 말에 30명이었던 해사대의 인원은 해방병단을 결성할 때 200명으로 증가되었다. 해방병단은 미군정과 협의하여 진해에 해안경비대 본부와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진해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해사대가 조선국군준비대에 이어 두 번째로 조직된 사설 군사단체였지만, 해방병단은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해 설치된 국방사령부에 편입됨으로써 3군 중 최초로 창설된 정식 군사단체가

집회에서 해병대 60년사가 별도로 집필되고 있기 때문이다.

9) 오진근·임성재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상권(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5), pp. 25-36.

10) 해군창설기념일은 해방병단의 탄생일이다. 11월 11일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선비를 뜻하는 士자가 두 번 계속되는데, 여기에는 해군창설의 주역인 손원일 제독의 “해군은 국제 신사여야 한다”는 의미가 배어 있다.

되었다.¹¹⁾

해방병단은 1946년 6월 15일에 미군정법 제86호에 의해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되었으며,¹²⁾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공포된 1948년 11월 30일자 법률 제9호(국군조직법)에 의해 해군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해방병단은 미군정으로부터 선박을 인수했지만, 그 선박들은 경비함으로 볼 수 없는 100톤 이하의 보조선이나 잠역선이었다. 해군이 경비함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함정을 보유하기 시작한 때는 미군정으로부터 상륙정(500톤급 LCI) 2척을 인수한 1946년 9월 15일이었으며, 그 후 6·25전쟁 직전까지 45척을 인수하고, 12척을 퇴역시켰다. <표 1>¹³⁾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군은 1948년 8월부터 33~34척을 줄곧 보유했는데, 소해정(YMS·JMS)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그밖에도 경비함이 아닌 수송선, 유조선, 주정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6·25전쟁 직전까지 함정 보유 현황

시 기	계(척)	세부 내용(척)
1946. 9. 초	8 이상	디젤선 2, 증기선 3, 상륙주정 2, 요선(橈船) 1, 기타 수 척
1948. 8. 15	33	YMS 15, JMS 10, LCI 6, PG 1, YO 1
1950. 6. 25	33	PC 1, YMS 15, JMS 10, LST 1, LCI 1, PG 1, YO 1, AKL 1, GB 2

11) 육군은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1946년 1월 15일을 창군기념일로 그리고 공군은 육군항공사령부가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949년 10월 1일을 각각 창군기념일로 삼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해안경비대 사관학교가 창설된 1946년 1월 17일을, 육군사관학교는 조선경비대사관학교가 창설된 1946년 5월 1일을, 그리고 공군사관학교는 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한 1949년 1월 4일을 각각 개교기념일로 삼고 있다.

12) 이때 군정의 國防局도 統衛部로 개칭되었다. 『大韓民國海軍史』, 行政篇, 第1輯(4278. 8. 15~4283. 6. 25), pp. 27, 50.

13) 같은 책, pp. 31-32, 103-125.

해군 병력도 증가했다. 해방병단을 창설할 당시 70명에 불과했던 병력은 1946년 10월 3일에는 1,191명으로, 1948년 8월 15일에는 3,000명으로, 그리고 6·25전쟁 직전에는 5,879명(해병대 1,241명 포함)으로 증가했다.¹⁴⁾

해군의 임무는 <표 2>¹⁵⁾와 같았다. 해군은 미 군정기는 물론 정부수립 후에도 해안경비대의 임무를 주로 수행해야 했으며, 그밖에도 군정청 해사과의 해사업무, 선원행정, 선박검사권, 해양경찰의 업무까지 맡았다. 정규 해군의 해상경비 임무는 그 임무를 미 7함대로부터 이관받은 1947년 8월 3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해안경비대가 정부수립 이전부터 사실상 정규 해군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2> 6·25전쟁 직전까지 해군 임무의 변화

연도	일자	주요 임무
1945	11. 11	연안경비, 밀수방지, 난파선 구조
1946	1. 14	등대를 제외한 해사관련 업무 추가(군정법령 제42호)
	6. 7	불법조업과 밀수선 감시, 조난선 구조, 항내 초계
	6. 15	연안 해상의 근해안과 도서 순찰(군정법령 제86호)
	9. 30	밀항선 취조, 침몰선 구조
1947	8. 30	38선 이남 해상경비(미 7함대로부터 이관)
1948	2. 29	고도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함정부대의 보유와 유지(총사령관 훈시)
	5. 20	선원관련 행정, 선박 검사권 추가(군정법령 제189호)
	5. 25	해상과 해안에서의 경찰권 추가(군정법령 제197호)
1949	2. 14	북한선박 침투방지, 밀수선 단속, 조난선 구조, 해상 수송

14) 같은 책, pp. 50, 73-74.

15) <표 2>에서 군정법령 이외의 내용은 같은 책, pp. 19, 30을 근거로 작성했다.

해군이 이러한 함정세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표 3>¹⁶⁾을 통해 알 수 있다.

해군은 작전조직과 행정지원조직을 연차적으로 하나씩 신설하고 조정해 나갔다. 그 결과, 6·25전쟁 직전의 해군부대는 해군본부, 경비부 8개(인천·군산·목포·부산·포항·목호·제2·제3), 통제사(진해), 정대 2개(제1·훈련), 해군사관학교, 조합창으로 조직되었다. 해군본부는 2참모부장(작전·행정), 5국(작전·함정·인사·경리·호군), 10감실(정보·통신·병기·교육·법무·감찰·헌병·정훈·시설·의무), 1실(총무)로 편성되었다.¹⁷⁾

해방병단이 설립된 후 일본에서 귀국하는 동포들을 수송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작전활동의 주요 내용은 수송, 구조, 나포, 항로표시, 실습, 인수, 정보수집, 편대기동훈련, 함포사격, 합동훈련, 폭동진압, 공비토벌이었다. 해군은 1947년까지 18척의 선박과 130명의 인원을 해상에서 구조했으며, 맥아더라인 침범과 밀수행위 등의 이유로 일본 선박 281척을 나포하고 인원 520명을 체포했다. 1948년부터는 좌익세력의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고(4회), 북한에 대해서는 선박납치에 대한 보복행위와 정보수집 및 북한에서의 작전¹⁸⁾을 하기도 했다.

창군시절부터 교육활동을 중시한 해군은 교육기관을 많이 창설했다. 장교교육을 위해서는 해군병학교를 신설했다. 해군병학교는 5차례의 개명을 거쳐 1949년에 해군사관학교로 개명되었으며, 산하에 간부후보생특별교육대와 갑판준사관교육대를 신설했다. 하사관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분야별 학교를 순차적으로 설립해나갔으며, 사병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1946년에 신병교육대를 창설했다. 특이한 점은 1946년부터 3년간 해양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해오다가 1949년에 교통부로 이관한 사실과 미국식 장교계급과 군번을 부여한 사실이다.

<표 3> 6·25전쟁 직전까지 해군 활동의 주요 내용

연도	조 직	작 전	문 화	교육·인사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환포로 수송 (일본→부산) ·이승만 해상수송 			
1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 4(인천·목포·목호·부산), 과견대(김포), 진해 특설기지 사령부 창설 ·조합창, 병원, 헌병대, 군악대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로표시업무 ·일본인 80명 수송 (진해→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隊報』 발간 ·해군기 제작 ·군가("바다로 가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군병학교→해안경비대사관학교→해안경비대학 ·갑판준사관교육대 ·위생학교, 신병교육대 ·군산해양대학 인수 ·미국식 장교계급군번 부여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 1(군산), 수영 1(제주), 과견대 1(주문진) 신설 ·특무정대 2(부산·여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편대훈련(마산·인천) ·구조 선박 18척, 인원 130명 ·나포 선박 281척, 인원 5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군사관학교 교가, 교훈 제정 ·충렬사, 한산도 참배 시작(이후 매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경비대학→해사대학 ·하사관교육대를 7개 학교로 개편 ·항해학교 신설 ·조선해양대학 인수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해안경비총사령부 직제개편 ·해군본부 직제개편(5국5감실) ·군기대, 의무대, 기상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선 9척 나포 ·조선경비대와 합동작전 ·여순반란사건 진압작전 ·각 사령관 해상일주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군을 방송에 최초 소개 ·함정번호 제정 ·정부수립기념식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사대학→해군대학 ·간부후보생 특별교육대, 자동차 교육대 신설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무정대를 4개 정대로 개편 ·인천기지를 인천경비부로 개편 ·해군조직 개편→경비부 3, 통제부 1, 기지 3, 정대 4, 해사, 병원, 해병대 ·해군본부 조직 개편(2부장5국10감실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선 3척 나포 ·편대기동훈련 ·몽금포 기습작전 ·진주지구 공비토벌진 참가 ·지남호 인수(미국) ·제주도 공비토벌진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군 표어와 실천지침 제정 ·『정훈주보』 발간 ·해군사관학교 교기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군대학→해군사관학교(3년제) ·간호장교 교육대, 군악학교, 포술학교, 신호학교 신설 ·해양대를 교통부로 이관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 2개를 경비부(포항·군산)로 개편 ·선박경호대(부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만 정보수집작전 		

16) <표 3>은 같은 책과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상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17) 『大韓民國海軍史』, 行政篇, 第1輯, pp. 75-77.

18) 북한에서의 작전은 몽금포 기습작전과 원산만 정보수집작전을 의미한다.

문화분야에서도 특이점들이 나타난다. 1946년에 해군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해군기를 제정했고, 군가도 제작했다. 1947년에는 해군사관학교의 교가와 교훈을 만들었으며, 1949년에는 해군표어와 실천지침을 제정했다. 또한 해군 장병들이 1947년부터 매년 통영의 충렬사와 한산도를 참배하기 시작했다.¹⁹⁾

해양에 대한 소수인의 애착과 관심으로 발족된 해군은 정부수립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경제력의 미비 때문에 사비 출연과 미국 원조에 의존해야만 했다. 서구의 기준으로 볼 때, 전투함이 아닌 보조함이나 주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작은 함정들만 보유했던 해군은 6·25전쟁 직전에 백두산함(PC 701)을 구입하여 인수했을 때 비로소 전투함다운 전투함을 보유할 수 있었다. 전력의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임무는 해양경찰, 해운항만, 해군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작전·교육·지원 조직과 본부 조직 등 여러 부대와 기구가 연이어 조직, 추가, 개편, 개칭되었다. 또한 해군잡지를 발간하고 해군기·군가·교가·교훈 등을 제정했고, 이충무공의 후예로서 선양활동을 시작했다. 이때에는 해군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2)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불법남침을 함으로써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은 세계사와 한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해군에게도 큰

19) 선각자들이 창군요원을 모집하기 위해 서울 거리에 붙인 벽보 문구 중 하나는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키자. 조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충무공의 후예를 모집함”이었다(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상권, p. 25).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해군의 숭배전통은 해사대를 설립하려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영향을 주었다.

전쟁기간 동안 함정세력이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증강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4>²⁰⁾와 같다.

전쟁기간 동안 36척의 함정을 인수했지만, 손실이나 퇴역으로 전쟁 직후에 20척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초계함과 구잠함 등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함정들이 많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주력함의 유형이 소해함에서 경비함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지휘부를 해군본부에 설치하고서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며, 전 부대에 전투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해본작명 제48호). 제1정대와 제2정대는 동해와 서해의 경비를 강화하고 상륙을 시도하는 적선을 격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각 경비대는 관할 해상을 봉쇄하고, 민간선박의 출입을 엄금하며, 적선이나 적성선박을 격침하거나 나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개전 첫날, 해군은 웅진반도(釜浦)에 고립된 육군17연대 병력을 철수 수송했으며(LST 801 천안함), 대한해협 해전에서 적의 대형 수송선 1척을 격침시켰고,²¹⁾ 묵호경비대의 육전대가 금진·옥계전투를 했으며,

<표 4> 6·25전쟁 직전과 직후 함정세력의 비교

시기	계	함정 유형													
		PF	PC	PCS	LSSL	JMS	YMS	PT	LCI	LST	AKL	GB	LT	PG	YO
직전	33		1			10	15		1	1	1	2		1	1
직후	56	4	5	4	4	8	13	3	1	4	5	1	1	2	1

20) <표 4>는 『作戰經過報告書』, 韓國戰爭 海軍史料, 第3·4卷, p. 289와 『大韓民國海軍史』, 行政篇, 第1輯, pp. 103-125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21) 이 해전은 백두산함(PC 701)이 부산에 기습상륙하기 위해 600명의 개릴라를 태운 적 무장선박을 추적과 교전을 번갈아 하여 격침한 전투이다. 당시에는 동해 해상작전, 대마도 해상작전, 대마도작전 등으로 표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대한해협 해전으로 통일되어 표기되고 있다.

<표 5> 6·25전쟁 기간의 해역별 작전 현황

주문진 파견대가 적선 1척을 격침시켰고, 옥계해전에서 적함 1척을 교전 끝에 격퇴시키고 2척의 선박을 격침시켰다. 또한 재진부대를 통합하여 진해방위대를 편성했으며, 관민이 소유한 대형선박을 징발했다.²²⁾ 이러한 행동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이 취한 초기대응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해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때는 유엔군의 참전과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7월 14일 직후부터였다. 미국 극동해군사령부 → 미국 제7함대사령부 → 미국 제5기동부대사령부 산하의 부대로 편성된 한국해군은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상작전의 주도권을 유엔해군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으며, 적 해군력이 허약했기 때문에 해전다운 해전도 할 수 없었다.

전쟁기간 동안 해군은 해상경비, 봉쇄작전, 소해작전, 수송, 지상공방전 지원, 상륙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는데,²³⁾ 구체적으로 전개한 작전 내용은 <표 5>²⁴⁾와 같다. 각 연도마다 작전을 한 횟수는 거의 비슷했다. 해역별로 보면, 1950년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남해에서의 작전횟수가 적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1951년부터 주요 해상 전장이 중부 이북지역과 해역이었기 때문이다. 동해에서는 영흥만 일대가 그리고 서해에서는 황해도와 서해 5개 도서의 해역이 각각 주요 작전무대였다.

성분별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작전들은 수송작전 262회, 기습작전 42회, 상륙작전 24회, 소해작전 18지역, 철수작전 6회, 해전 1회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²⁵⁾

22) 『海軍作戰史 概說』, 韓國戰爭 海軍史料, 第1輯(海軍本部, 2001. 1), pp. 6-11.
 23) 같은 책, pp. 23-24.
 24) <표 5>는 같은 책: 『大韓國海軍史』, 作戰篇, 第1輯(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大韓國海軍史』, 作戰篇, 第2輯(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8); 『作戰經過報告書』, 韓國戰爭 海軍史料, 第1-12卷(海軍本部, 2001. 2); 『韓國海戰史』(海軍大學, 2000. 5); 『海軍逸話集』 第1-5集(海軍本部 海軍歷史記錄團, 2006. 4); 『韓國戰史』(合同參謀本部, 1984. 11)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25) 물론 봉쇄작전과 경비작전도 실시되었지만, 이러한 작전들은 전쟁기간 내내 계속되었기 때문에 횟수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연도	동 해	서 해	남 해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해협 해전 • 목호, 포항 육전대의 방어전 • 장사동 기습상륙작전 • 목호 수복전 • 원산, 영흥만, 장전 소해작전(YOYO 작전) • 홍남, 원산, 성진 철수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군산, 목포 방어전 • 서해안 봉쇄작전 • 덕적도, 영흥도 상륙작전(Lee 작전) • 인천 상륙작전 • 목포 상륙작전 • 진남포 소해작전 • 진남포 철수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 철수작전 • 서·남해 봉쇄작전 • 통영 공방전 • 통제부방어대의 전투 • 남해해역 진격작전
1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흥만 도서 상륙전 • 38작전(경비) • 원산 봉쇄와 포위작전 • 목호, 여도의 상륙전 • 영흥만 소해작전 • 원산 포위작전 • 양도 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진, 연백 작전 • 2차 인천상륙작전 • 서해도서 전투 • 탁수작전(경비) • 순위도 포격전 • 병력, 피난민 수송 작전 • 교동도, 백령도, 석도 점령전 • 신미도 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항작전(경비)
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작전(경비) • 원산 봉쇄작전 • 양도 방어전 • 해연작전(도서기습) • 백려작전(침보공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수작전(경비) • 충무작전(경비) • 연평도, 초도, 창린도 상륙전 • 백려작전(침보공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작전(경비)
1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한작전(경비) • 도서 피난민 수송작전 • 원산 봉쇄작전 • 백구작전(도서기습) • 제1해룡작전(호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각작전(경비) • 서해 도서 철수작전 • 제2해룡작전(호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량작전(경비) • 제3해룡작전(호송)

정전 이후 해병대의 전과를 제외한 해군만의 종합적인 전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인명 분야에서의 전과는 적 사살 12,962명, 부상 1,570명, 생포 1,194명, 자수 2,148명이었다. 함정과 선박의 경우에는 적함 격침 2척, 적선 나포 84척, 격침 134척, 격파 218척이었다. 적기의 경우에는 각 1대씩 격추, 격파, 납획을 했다. 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안포대 57곳과 일반시설물 504곳을 격파했다. 기뢰는 1,011개를 발견하여 폭파시켰다.²⁶⁾ 이러한 전과는 전사 693명, 실종 80명, 함정손실 5척이라는 아군의 피해와 비교할 때 가치가 더욱 커진다. 한국 해군이 이러한 전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해양통제하에서 침략한 지 1주일 만에 북한을 근접 봉쇄하여 적의 해상기동을 차단하고 해상보급로를 폐쇄했기 때문이었다.²⁷⁾

그밖에도 해군의 전시활동에는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었다. 첫째, 해군 조병창이 1950년 12월 18일부터 1951년 5월 7일까지 만 5개월 동안 제2충무공정(PG 315)을 건조했으며, 1951년 8월 25일에 수상정찰기를 개조하여 海鷲號로 명명하고 나아가 1952년 10월 22일부터 제2호기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디젤기관 제작 계획안을 수립했고, 유조선 1척(AO-2 천지)을 구입하여 네덜란드에서 한국까지 항해하여 가져왔다(1950. 5. 30 ~ 9. 14 항해). 둘째, 통제부 교육부를 본부직속기구인 해군종합학교로 개편했고, 신병교육대를 신병훈련소로 개칭했으며, 수리학교·암호교육대·기상교육대·전탐학교·교관학교 등을 신설했고, 교육도서관을 신설했다가 교재창으로 개칭했다. 셋째, 제주도의 여학생과 여교사 126명이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후, 70여명이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모두 제대했다.²⁸⁾ 넷째, 1951년 10월 1일 부산에서 개소한 해군기술연구소는

26) 『大韓民國海軍史』, 作戰篇, 第2輯, 附錄 3과 4.

27) George W. Baer,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11), p. 603.

28) 육군 여군이 1950년 9월 4일 부산에서 여자의용군교육대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해군 여군이 육군 여군보다 6일 먼저 창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1년에 귀화일본인(李用大)을 중심으로 원자폭탄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1952년 6월 15일 진해에 설립된 해군과학연구소는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1953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또한 이 연구소는 산소, 축전지, 산화연 등을 개발하고 제조했다.²⁹⁾ 다섯째, 여수와 군산에 선박검사소를 그리고 목포에 檢潮所를 설치했고, 교동도의 수심을 측정했으며, 1951년부터 『항로고시』를 10일마다 발간했다. 여섯째, 1952년 4월 13일에 이충무공 동상을 제작하여 진해 통제부 앞 로터리에 세웠으며,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목포 고하도의 충무공비각을 증축했다. 일곱째, 1950년 10월 1일에 해군정훈음악대가 첫 연주회를 연 이후 2년 동안(1951~1952) 시민연주회 106회, 국군연주회 155회, 유엔군연주회 120회 등 총 381회를 연주했다. 또한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종군화가단, 종군작가단, 종군기자단을 1951년 3월에 조직했으며, 그들은 1951년 8월에 해군잡지 『海軍』을 창간했다.

해군이 전쟁 초기에 보유한 함정 세력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많은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으며, 아군의 손실과 적의 피해를 비교할 때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함정 세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란기간 내내 계속 이어졌으며, 그 결과 전쟁 직후에는 소해함 위주를 벗어나 정규 경비함 위주의 강한 함정세력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 척수도 전쟁 직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한편, 무기개발, 교육중시활동, 여군입대, 과학기술연구, 해사업무 수행, 이충무공선양사업, 문화사업 등이 전시에 추진되고 실시되었다는 것은 당시 해군이 전쟁수행에 급급하지 않고 전후에 펼쳐질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9) 『大韓民國海軍史』, 行政篇, 第2輯, pp. 310-312;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재독』 하권, pp. 473-489.

(3) 전후 정비활동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해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³⁰⁾ 1954년에 수립된 해군 5개년 계획(1954~1958)에 따라 177척을 보유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1958년에는 새싹 1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들의 바탕에는 1951년에 조인되고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55년 1월 29일에 체결된 미 해군함정 대어관련 한미협정의 체결이 있었다. 해군은 1955년에 14척을 그리고 1956년에는 27척을 도입하여 총 76척의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호위구축함(DE)과 고속 수송함(APD)이 포함되었다. 1961년에 수립된 해군증강 5개년 계획에 따라 1963년부터 대잠작전을 할 수 있는 구축함(DD)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해군은 숫자상으로 볼 때 1970년에 전쟁 직후 전력의 2배에 이르는 총 96척의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대형함³¹⁾을 많이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 톤수도 전쟁 직후(28,105톤)보다 두 배 이상(66,308톤)이 되었다.³²⁾ 또한 해군은 수상기 2호기인 桴海號(1954. 6. 14)와 3호기 制海號(1957. 4. 10)를 제작

30) 정금모 3대 참모총장(1956. 11. 1~1959. 2. 23)의 3대 긴급과제에 함정확보가 들어 있었으며, 이용운 5대 참모총장(1959. 2. 23~1960. 9. 30)은 전력증강 제일주의를 기본운 영방침으로 정했고, 이성호 6대 참모총장(1960. 9. 30~1962. 9. 28)은 신예 함정의 도입을 통한 함정세력의 대폭 증강을 첫 번째 시책으로 삼았다. 『大韓民國海軍史』, 行政·作戰 合編, 第4輯, pp. 21-25.

31) 원래 구축함은 대형함이 아니라 소형함으로 분류되며, 미국 해군은 소령급 장교를 함장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소형함이나 주정으로 구성된 기존 보유함정을 감안하여 당시 구축함을 대형함으로 분류했고, 대령급 장교를 함장으로 배치했다.

32) 1954년의 보유 척수는 52척으로서 PF 4, PC 5, PCS 4, PG 2, PT 3, LST 4, LSSL 4, AMC 2, AMS 14, AKL 3, AO 2, ATA 1, YO 1, LCI 1, YMS 1, GB 1척이었다. 1970년의 보유 척수는 96척으로서 DD 3, APD 2, DE 3, PF 4, PCEC 4, PCE 7, PC 3, PG 4, LST 8, AKL 1, LSMR 1, LSM 12, AKL 5, ATA 2, YO 2, AO 2, MSC 10, MSD 1, LCU 1, PB 9, FB 9, SB 4척이었다. 이 수치들은 『作戰經過報告書』, 海軍史料, 第13卷(海軍本部, 2002. 2)과 같은 책, 第30卷(海軍本部, 2003. 8)의 통계 부분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했으며,³³⁾ 1958년에는 4대의 항공기를 더 제작하기도 했다.³⁴⁾

휴전 후 해군의 주요 임무는 공산집단의 재침 예방, 해양주권선언(1952. 1. 18)에 따른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방지였다.³⁵⁾ 이를 부연 설명하면, 1953~1957년 해군의 주요 임무는 봉쇄와 호송, 연안 해상경비, 영해 항만 경비, 소해, 지원수송, 통상어로보호였다.³⁶⁾ 1959년의 임무는 적의 불법행동 봉쇄, 간첩침투 방지, 적진동태 정찰, 어로보호, 밀수방지였다. 1965년의 임무는 간첩침투 방지와 색출, 북방한계선 경계감시, 대공 및 대잠 경계, 탐색구조훈련, 어로보호, 주월 한국군 지원 및 월남민과의 친선유대활동 강화였다.³⁷⁾

이러한 전력과 임무의 변화에 따라 조직도 변했다. 1953년 9월 10일에 제1함대가 해체되고 한국함대가 창설되었으며, 그 휘하에 5개 전대가 설치되었다.³⁸⁾ 1954년 9월부터 1955년 3월까지의 기간에는 동·서·남해 경비와 봉쇄작전의 지휘권을 미 제95기동함대사령관(CTF 95)으로부터 인수받은 해군참모총장이 한국함대를 성분작전을 기준으로 개편했다.³⁹⁾ 또한 1965년에는 주월 특수수송단대가 편성되었다가 해군수송단대, 해군수송분대, 해군수송전대(백구부대)로 연이어 개칭되었으며, 1973년 4월까지 활동했다.⁴⁰⁾

해군이 이 기간에 실시한 주요 활동 내용은 <표 6>⁴¹⁾과 같다.

33) 『大韓民國海軍史』, 行政·作戰 合編, 第3輯, pp. 51-53. 한편, 당시 해군과학연구소는 잠수함을 연구하고 건조작업까지 추진하고 있었다. 같은 책, p. 47.

34)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상권, p. 485.

35) 『大韓民國海軍史』, 行政·作戰 合編, 第3輯, pp. 5-6.

36) 평화선 경비임무는 1953년 9월 11일 해안경비대로 이관되었다.

37) 『作戰經過報告書』, 海軍史料, 第25卷(海軍本部, 2004. 8), pp. 60-67.

38) 5개 전대는 제1호송전대, 제3경비전대, 제5경비전대, 제1소해전대, 제7보급전대였다.

39) 개편된 조직은 제1전단(경비작전), 제2전단(상륙작전), 제31전대(소해기뢰작전), 제51전대(해상군수지원), 함대훈련단이었다.

40) 『백구부대사』(해군본부 작전참모부, 1976. 1)를 참조.

41) <표 6>은 『作戰經過報告書』, 海軍史料, 第12-30卷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표 6> 전후 정비기간의 해군 활동

* (A-B)는 한미연합훈련, A는 한국해군 합정 수, B는 미국해군 합정 수

구 분		연 도								
		54	55	56	57	58	59	60	61	62
함행동 (%)	출동			30	20.9				25.9	24.9
	훈련			10	7.5				11.8	14.7
	대기			43	31.3				27.7	26.0
	수리			17	40.3				14.6	34.4
해상경비	척								344	312
	일								4,729	4,279
대간, 월북, 대북작전					4	3	4	5	12	
해상훈련	종류								20	25
	척								627	869
	회								310	363
	일								2,914	4,037
대잠훈련	회					(3)	(6)	(5)		(10)
	척					(12-3)	(26-6)	(31-5)		(57-11)
소해훈련	회		7 (9)	5 (8)	3 (5)	6 (2)	3 (5)	5 (3)	(3)	(4)
	척		31 (31-18)	48 (38-?)	23 (39-43)	46 (17-11)	21 (39-27)	48 (25-15)	(20-15)	(38-36)
상륙훈련	회	2	2	6	1 (1)	1 (1)	1 (1)	2 (1)	2	2 (1)
	척	62	40	86	33 (25-8)	36 (34-15)	29 (22-34)	42 (25-26)	50	42 (25-?)
고속정훈련	회									
	척									
	R/S									
KUSO	회									
점검(척)	전비							45	59	58
	행정						61	62	65	69
	장비						59	42	18	63

구 분		연 도							
		63	64	65	66	67	68	69	70
함행동 (%)	출동	22	23	30	34	38	44	46.7	42.1
	훈련	17	14	10	12	10	4	3.9	4.0
	대기	28	24	22	13	15	15	11.2	11.4
	수리	33	39	38	39	37	37	38.2	42.5
해상경비	척	204	239	388	375	285	656	643	564
	일	4,228	4,583	4,988	4,843	6,172	8,909	8,830	9,741
대간, 월북, 대북작전		9	1	9	5	20	22	8	6
해상훈련	종류	30	29	22	30	27	29	37	37
	척	1,141	997	1,018	987	490	1,081	1,971	1,354
	회	495	428	437	1,036	965	490	2,148	2,649
	일	4,336	2,790	2,826	2,967	4,383	2,665	4,109	2,718
대잠훈련	회	(8)	(8)	(7)	(10)	(10)	(10)	(8)	(10)
	척	8 (57-11)	8 (43-8)	(75-23)	(77-18)	(95-18)	(58-10)	(51-8)	(45-16)
소해훈련	회	(4)	3 (2)	6	1 (3)	1 (2)	1 (2)	5(1)	(7)
	척	(34-25)	19 (17-14)	37	6 (25-13)	8 (21-18)	3 (13-9)	21 (19-11)	(124-33)
상륙훈련	회	2 (1)	4	3	4 (1)	4	3	3 (1)	4 (1)
	척	31 (36-31)	77	37	31 (20-4)	49	19	9 (5-2)	9 (2-1)
고속정훈련	회						4	41	78
	척						13	83	
	R/S						21	1	
KUSO	회						76	337	
점검(척)	전비	61	65	69	55	66	65	42	90
	행정	65	67	66	61	66	68		
	장비	61	64	16	55	66	69		

먼저 연간 함 행동을 보면, 출동기간의 비율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보다 1960년대 후반이 훨씬 높았다. 훈련기간의 비율은 출동비율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대기기간의 비율은 1950년대에 월등하게 높았다가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져 거의 1/4 수준이 되었다. 수리기간의 비율은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고, 훈련기간이 가장 짧았다. 1960년대 후반에는 출동기간과 수리기간이 가장 길었다(각 40%). 대기기간은 짧았으며(10%), 훈련기간은 가장 짧았다(4%). 이러한 현상은 함정들이 대간작전의 증가로 장기간 출동을 나가고 그로 인한 함정피로도의 증가로 긴 수리기간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훈련과 대기할 기간이 부족했음을 뜻한다.

함정의 경비활동은 196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활발했다. 전반에는 200~300여 척의 함정이 4,000~5,000일간을 그리고 후반기에는 최대 650여 척이 9,700일간을 경비했다.

해상훈련의 경우, 1960년대 전반에 훈련 종목은 연간 20~30종, 참가 함정은 428~889척, 실시횟수는 310회였는데, 말기에는 37종, 1,970여 척, 2,649회, 4,119일로 각각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해상훈련의 양도 증가했다. 그중에서 주요 훈련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대잠훈련은 한미연합작전으로 매년 5~10회 실시되었으며, 한국 함정은 43~95척이 그리고 미국 함정은 8~16척이 참가했다. 소해훈련은 1960년대에 연간 3~6회 실시되었으며, 한국 함정은 13~124척이 그리고 미국 함정은 8~16척이 참가했다. 상륙훈련은 연간 2~5회 실시되었으며, 한국 함정은 최대 75척이 그리고 미국 함정은 31척이 참가한 작전도 있었다.⁴²⁾ 그밖에도 작전훈련에서 특이한 점은 간첩과 간첩선, 어선 월북과 납치, 북한 함정과 관련된 작전이 1960년대 후

42) 1950년대 후반에 소해훈련은 8~16회 실시되었으며, 한국 함정은 회당 48척까지 그리고 미군 함정은 43척까지 참가한 적이 있었다. 같은 기간에 상륙훈련은 2~6회 실시되었으며, 한국 함정은 86척이 그리고 미국 함정은 34척이 참가한 적도 있었다.

반으로 갈수록 대폭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고속정훈련과 긴급항공기지원요청 훈련(KUSO)을 1960년대 말부터 실시하게 된 사실이다. 이처럼 훈련기간이 1960년대 전반보다 후반에 더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횟수와 종목 등이 증가한 것은 출동 중 해상훈련을 많이 실시한 때문이었다.

휴전된 지 1년 2개월 후인 1954년 9~10월에 해군본부 인사국은 9명의 검열관으로 구성된 검열단을 처음으로 조직하여 교육과 인사관련 부서들을 종합적으로 검열한 후, 진단과 처방을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시행되었다. 첫째, 1954년에 전시 동원체제에서 벗어나 전역과 충원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해상근무와 육상근무를 교대로 하는 인사원칙을 세워 실행하기 시작했다.⁴³⁾ 둘째, 고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군사반을 확충하고, 해군대학을 설립했다(1955. 7. 1). 셋째, 전란 중인 1952년부터 미국에 보내기 시작한 유학생의 규모를 점차 증가시켰으며, 그리하여 1955년에는 유학생의 수가 237명이나 되기도 했다. 넷째, 교육문제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교육단을 신설했으며(1956. 3. 21), 4년제 교육을 실시하여 학위를 받게 된 사관생도들의 해외순방과 원양실습을 겸한 순항훈련을 1954년 7월부터 시작했다.⁴⁴⁾ 다섯째, 1955년부터 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여섯째, 해군예규 320건을 미국식으로 개정하여 예규 및 규정 288건을 공포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해군은 다양한 서적을 발간했으며,⁴⁵⁾ 충무공 이순신의 선양사업도 꾸준히 실시했다.⁴⁶⁾ 1955년에는 해군가를 현상공모하여 제정했으며, 대통령령 제1084호에 의거 해군창설기념일을 해방병단창설기념

43) 『大韓民國海軍史』, 行政·作戰 合編, 第3輯, pp. 14-18.

44) 같은 책, pp. 24-28.

45) 영문화보 *Navy Weekly* ('54. 9), 『해군 시정업적 연보』('55), 『해군 연보』('57), 『해군 화보』('57. 7. 15), 『함정국 월보』('60), 『해군 순보』('61. 5. 11), 『해군 주보』('61. 10. 2), 『수군명장전』('62. 6), 『한국해전사』('62. 6) 등이 발간되었다.

46) 『충무공과 해군』('59. 10)과 『민족의 등불 충무공 이순신』('68. 2. 1)을 발간했으며, 해군사관학교에 충무공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66).

일인 11월 11일로 제정했다. 또한 1969년 9월 5일에는 낙도기동홍보단을 창단하여 도서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해군관련 홍보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전후 1970년대까지 15년간 해군은 전후 처리와 정비활동을 주로 했다. 1960년대부터는 해군이 미국 군사원조에 의해 함정세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으며, 구축함을 처음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증강된 함정들이 모두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노후 함정들이었지만, 북한과 대치중이고 경제가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 해군에게는 노후성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이 기간 동안 해군은 대간첩작전훈련과 북방한계선 경계감시 및 어로 보호의 임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직 면에서도 한국함대가 창설되고, 예하부대는 성분작전을 기준으로 조직되었다. 함정의 출동과 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그 대신 훈련과 대기 기간이 짧아졌는데, 이는 함정들이 작전을 수행하느라 그만큼 분주하게 활동했음을 뜻한다. 훈련은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특징과 부합하여 미국과 연합훈련을 많이 했으며, 전쟁 때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소해작전과 상륙훈련이 주종을 이루었다. 나아가 해군은 1965년부터 부대를 파월하여 국제자유수호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하고 또한 실전경험을 축적했다. 교육과 인사관련 사항들은 종합검열 끝에 전시 체제에서 벗어나 평시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예규와 규정도 미국식으로 정비되었으며, 유학장병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기도 했다. 그밖에도 해군가와 창군기념일을 제정했으며, 이충무공의 선양사업을 계속 추진했고, 도서지역에 대한 봉사활동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광복 직후 소수 개인들의 노력과 헌신, 미군정하에서의 활동, 정부수립 후 정규 해군으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창군활동에 여념이 없었을 때, 해군은 불의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전쟁은 전력이 약한 해군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해군은 그 역경을 극복하고자 초기 대응부터 휴전 때까지 불굴의 전투의지를 발휘하여 놀라운 전과

를 거두었다. 한편, 해군은 전란 기간에도 전후에 펼쳐질 미래를 준비했으며, 따라서 휴전 이후 곧바로 전후 뒤처리를 하고 전쟁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정규군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해군은 창군한 지 25년 만에 정규군의 체제를 완비할 수 있었다.

3. 연안해군 건설기(1971~2000)

1970년대는 한국군이 자주국방의 구호 아래 장비현대화와 국산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였다.⁴⁷⁾ 해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전력증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상세한 내력은 <표 7>⁴⁸⁾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력 증강은 국내 건조와 외국에서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건조는 해군 공창에서 일종의 소형 주정들을 건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75년부터는 대형 고속정(PGM)을 미국에서 도입한 후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에서 건조하기 시작했으며, 소형 고속정도 국내에서 대량으로 건조되었다.

47) 1960년대 말기에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납,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같은 사건으로 북한의 침투활동이 국가안보의 큰 위협요소로 대두했고, 닉슨독트린선언과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등 국제관계의 변화도 일어났다. 이에 한국군은 긴급병기개발사업(병개사업, 1971. 11. 11), 한국군장비현대화 5개년계획('71~'75), 제1차 전력증강계획('74~'81), 제2차 전력증강계획('82~'86), 전력정비사업('87~'95)을 차례로 추진했다.

48) <표 7>은 “해군 50년사”, 1995년도 용역연구과제 보고서(해군본부, 1995. 10); 황재연, 『한국 해군 잠수함』, 최신무기시리즈 1(서울: 군사연구, 2007. 4); 황재연·김정환, 『현대 해군의 수상전투함』, 세계최신무기시리즈 2(서울: 군사연구, 2007. 10); 김민석·양욱·유용원 지음, 『신의 방패 이지스』(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2)의 문헌들과 다음과 같은 웹문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http://www.navy.go.kr/sus_guide/sub_data.jspimenu=3

http://bemil.chosun.com/brd/bemil_print.jtml

<표 7> 연안해군 건설기의 주요 전력증강 활동

일 시	활동 내용
1971	수중익선 건조(공창)
1971. 2	유도탄 고속함(PKM) 도입
1971. 3~1972. 3	한국형 유도탄 고속정(PKMM) 건조
1972	어로지도선 건조(공창)
1972.11.18	국산고속정 학생호(PK-1) 진수
1974	HBX-2호정 건조(공창), 어뢰개발 시작(ADD)
1974. 1.	잠수함 건조기술 교육(독일)
1974. 2.25	제1차 전력증강계획 확정(울곡사업)
1975	대형 고속정(PGM) 도입 → 1978년까지 9척 국내 건조 소형 고속정(PK) 29척 건조
1975. 1.10	해본 군수참모부에 울곡단 잠정 편성
1975. 2.	울곡5인위원회가 잠수정건조계획 승인
1975. 7.	한국형 호위함(FFK) 건조 시작
1975. 7.15	고속정(CPIC) 1척 도입
1976	대잠초계기(S-2, S-2C) 17대 도입
1977	해상작전용 헬기(ALT-III) 12대 도입
1977. 3	군비처에 울곡단 설치
1978~1993	중형고속정(PKM) 105척 건조
1978	헬기 UH-1H 도입
1978. 4.14	울곡단 특수사업처 신설(FFK)
1978.11	돌고래 개념설계 보고
1979	어뢰 MK44 미국에서 시사(ADD)
1979. 3	울곡단을 기관부 군비처로 이관
1979.11	돌고래 건조사업 승인
1980. 3	특수사업처, 설계과, 조함과를 조함실로 통폐합
1980. 6.16	돌고래 설계건조 계약 체결
1980.12.30	한국형 호위함 FFK-951 인수 → 1981~1993년 9척 건조
1982~1986	2차 울곡사업(한국형 구축함)
1982	유조함(AOG) 2척 도입
1982.12	88위원회(잠수함획득연구위원회) 설치 → 잠수함사업단으로 개편
1983	PCC 4척 건조
1984	천해용 어뢰 K-744 시사(ADD), 잠수함사업단 해체
1985	PCC 2, FFK 1, 돌고래 3척 건조

일 시	활동 내용
1986~1992	PCC 2, FFK 2, PKM 1, PK 1 건조
1986~1994	한국형 호위함(FFK) 9척 건조, 기뢰탐색함(MHC) 6척 건조
1986	FFK 1, PCC 4, MHC 1척 건조
1986.12	KDX사업단 발족
1986. 7. 5	어뢰 K-744 승인
1987~1995	전력정비사업
1987	PCC 2척 건조
1987. 1	특수사업단 발족
1987.12. 1	209급 잠수함 도입사업 재가
1988~1990	천지급 군수지원함(AOE) 건조
1988	이탈리아 잠수정 7척 도입, FFK 1, PCC 6척 건조
1988. 1	잠수함사업단 재발족
1988. 8~1993. 9	전탐감시소용 레이더 GPS-100 13대 도입
1988. 8. 8	잠수함 장보고함 건조 개시(독일)
1989	PCC 4, FFK 2척 건조, 공기부양형 고속상륙정(LSF-1) 건조, S/D 시사 실패, Exocet 시사 성공
1990~1994	고준봉급 상륙함(LST) 건조
1990~1999	백상어(K-731) 개발(ADD)
1990	S/D 시사 실패, Harpoon 시사 성공, PCC 4, AOE 1, SS 1, 돌고래 1 건조
1991	전천후헬기(LYNX) 12대 도입
1991. 1. 1	조함단 창설
1992	Harpoon 시사 성공, FFK 2, PCC 1 건조
1992. 2~1996.11	청해진급 잠수함전함(ASR) 건조
1993	PCC 2, MHC 3, LST 1 건조
1994	SS 1, MHC 1 건조
1995~1901	SS 7척 건조
1995	'97-'01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에 KDX-III(DDG) 3척 반영
1995. 1~11	대형 대잠항공기(P-3C) 8대 도입
1996	GPS 3대 도입, PGM 18, ASR 1 건조
1997	ATS 1, LST 1, AOX 1, SS 1, MLS 1 건조
1998	AOE 1, KDX-I 1 건조, 차기고속정(PKX) 사업 확정
1999	LST 1, DDH 1, LST 1, MSH 1 건조
2000	DDH 1, SS 2 건조, KDX-I사업 종결, 차기잠수함(214급) 건조계약회사 선정

제1차 전력증강계획(울곡사업)이 확정되자, 해군은 1975년 1월 10일에 울곡단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2월에 잠수함⁴⁹⁾ 건조계획을 수립했다. 7월부터는 한국형 구축함(FFK)⁵⁰⁾을 건조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 12월 30일에 최초의 함정을 인수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74년부터 어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일반어뢰(MK 44)와 천해용 어뢰(K-744)로 구분되어 진행된 개발사업은 국내외에서 시험발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척되었다.

1982년부터 시작된 2차 울곡사업의 중심은 잠수정이 아닌 실질적인 잠수함과 한국형 호위함이 아닌 실질적인 한국형 구축함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잠수함사업단은 1982년 12월에 시작되었지만, 국내외 사정에 의해 1984년에 해체되었다가 1988년 초에 다시 발족되었다. 첫 잠수함은 독일조선소에서 건조되어 가져왔지만, 2번함부터는 국내에서 건조되었다. 해군은 2001년까지 209급 잠수함을 9척 확보했다. 1차 한국형구축함사업(KDX-I)은 1986년 말에 사업단 발족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0년에 종결되었다. 해군은 KDX-I급 구축함(DDH)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1척씩 확보했다. 그 밖에도 1975년에 미국 고속정과 이탈리아 잠수정을 도입했으며, 1988~1990년에는 군수지원함(AOE), 상륙함(LST), 기뢰탐색함(MHC), 잠수함구조함(ASR)을 건조했다. 또한 1976년에 대잠초계기(S-2E)를, 1977년에 함재용 헬기(ALT-III)를, 1978년에 다른 유형의 헬기(UH-1H)를, 1991년에 전천후 헬기(LYNX)를, 1994년에는 신형 대잠초계기(P-3C)를 각각 도입했다.

신형 함정을 확보한 해군은 노후한 구형 함정들을 퇴역시켰다. 1971년에는 호위함(PF), 1979년에는 미국 고속정(CPIC)과 경비함(PCEC), 1981년에는 수송함(AKL), 1983년에는 경비함(PCE), 1993년에는 소형 고속정(PK),

49) 명칭은 잠수함이지만, 사실은 돌고래로 불리는 잠수정을 건조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잠수정건조계획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50) 이 한국형구축함사업은 FFK를 건조하려는 사업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한국형호위함사업이 정확한 표기이며, 실질적인 한국형구축함사업은 KDX-I 사업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울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형 고속정(PKM, PK) 사업도 계속 추진되었다.

1998년에는 중형 고속정(PGM)이 모두 퇴역했다. 2000년에는 구축함(DD), 고속수송함(APD), 중형 상륙함(LSM)이 순차적으로 모두 퇴역되었다.

해군은 1980년 4월 23일에 “해군력을 정비·강화하고, 해상통제권을 확보하여,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을 수호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1983년 10월 11일에 1차 수정된 후,⁵¹⁾ 1993년 4월 1일에 다음과 같이 다시 수정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보위를 위한 해양전력으로서, 자주적인 해양력을 구축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해상우세권을 확보하여 전승을 보장한다. 해양활동을 보호하여 국가이익을 증진한다. 해양력을 현양하여 국위를 드높인다.” 또한 해군은 해군창설기념일 1971년 11월 11일에 해군의 다짐을 제정했다.⁵²⁾ 이 다짐은 1976년 10월 5일에 1차 수정되었으며,⁵³⁾ 1980년 5월 1일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다.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 하나,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 둘, 책임을 완수하는 해군이 되자. 셋, 전기를 갈고 닦는 해군이 되자. 넷, 전우애로 뭉쳐진 해군이 되자. 다섯, 싸우면 이기는 해군이 되자.”⁵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함정 세력의 변화는 <표 8>과 같다.⁵⁵⁾

51)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보위의 해상전력으로서, 자주적인 해군력을 구축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해상통제권을 확보하여 전승을 보장하며, 해양자원을 보호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국력을 시현하여 국위를 선양한다.”

52)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자기 한 몸의 영화와 안락과 생명을 던져 나라와 겨레와 전통을 죽음 속에서 건져낸 우리 민족의 은인이다. 일생을 정의에 살아 굽힘이 없이 오직 국토와 동포를 사랑하며, 지혜와 신념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한 거룩한 영웅이다. 우리는 충무공의 후예로서 이 나라 해군이 된 젊은이들이다. 조국에 몸 바쳐 빛나는 역사와 함께 값있게 살 것을 굳게 다짐한다.”

53)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 하나, 바다를 주름잡는 해군이 되자. 둘,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 셋, 일격에 작살내는 해군이 되자. 넷, 전기에 피땀 쏟는 해군이 되자. 다섯, 유신에 앞장 서는 해군이 되자.”

54)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 정훈50년사』(대한민국 해군, 1999. 12), pp. 217-221: <http://www.navy.go.kr/>

55) <표 8>은 『作戰經過報告書』, 海軍史料, 卷30: 같은 책, 卷40: 姜永五, “한국의 海軍力 분석,” *Strategy 21*, 7호(2001년 봄·여름호): *Jane's Fighting Ships 2000-2001*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표 8> 연안해군 건설기의 함정세력 변화

구 분	유 형	연 도			
		1970	1980	1990	2000
전투함	DDH				3
	DD	3	10	11	5
	DE	3	1		
	APD	2	6		
	PG	4			
	FF			5	9
	PCC			19	18
	PC	3			
	PCE	7	3		
	PCEC	4			
PF	4				
상륙함/정	LST	8	8	8	10
	LSM	11	10	7	3
	LSMR	1	1		
	LCU/LCF	1	1		8
잠수함/정	SS Dolgorae				11
	SS T-209				9
소해함/정	LSML		1		
	MSC	10	8	8	8
	MHC			1	6
	ML				1
	MSH				3
	MSP	1			
고속함/정	PGM		9	9	5
	PK(M)		59	70	85
	PB	9			
	FB	9			
	SB	4			
지원함/정	AKL	5	2		
	ASR				1
	ARL	1	1		
	ATA/ATS	2	4		2
	AOE				3
	AO		2		
	YO	2			
계	94	126	138	189	

1980년의 함정 유형은 1970년과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구축함, 고속수송함 그리고 고속함/정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노후한 전투함들이 폐함되었다. 그러나 1990년의 함정세력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후한 소형 전투함이 모두 폐함되고, 그 대신 한국형 호위함과 초계함이 대폭 증가했다. 2000년에는 더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구축함의 수가 대폭 줄고, KDX-I 사업에 의해 한국형 구축함(DDH)을 보유했으며, 사실상 구식 구축함이 완전히 퇴역했다.⁵⁶⁾ 또한 잠수함과 잠수정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해군의 조직은 크게 변했다. 1951년에 조직된 제1함대 산하의 6개 정대와 PT편대는 6개월(1973. 7~1974. 1) 동안 5개 해역사령부(동해·부산·목포·인천·제주)로 개편되었다. 이 작전조직은 1986년 2월 1일에 작전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3개 함대(인천·부산·동해)로 다시 개편되었다. 2함대사령부는 9년간의 공사(1991. 10~1999. 9) 끝에 인천에서 평택으로 이전되었다. 1973년에는 함대 항공대가 창설되었으며, 1977년 1월 24일에 함대 항공단으로 증편되었다가 1986년 2월 1일에 제6항공전단으로 개편되었다. 1991년에는 조함단이 창설되었으며, 해군본부와 해군대학은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계룡대와 자운대로 이전했다. 1995년 10월 14일에는 제9잠수함전단이 그리고 1986년 2월 1일에는 군수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기간에 해군이 활동한 주요 내용은 1970년대만 살펴볼 수 있는데,⁵⁷⁾ 1970년대의 주요 활동은 <표 9>와 같다.

1970년대의 연간 함 행동을 보면, 출동 기간의 비율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높았고, 훈련과 대기기간의 비율은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갔다. 수리기간의 비율은 중엽 때 가장 높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기보다 더

56) *Jane's Fighting Ships 2000-2001*에는 한국 해군이 미국에서 인수한 구식 구축함 5척을 보유하고 *Jane's Fighting Ships 2004-2005*에는 3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57) 왜냐하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기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9>는 『作戰經過報告書』, 海軍史料, 卷31-40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표 9> 1970년대의 주요 활동

* (A-B)는 한미 연합훈련, A는 한국 함정, B는 미국 함정

구 분	연 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함 행 동 (%)	출동	43.1	41.0	40.8	41.0	35.0	36.8	35.2	32.6	34.6	36.1
	훈련	3.6	3.7	4.6	4.1	5.7	6.2	5.8	7.6	7.1	5.9
	대기	11.6	12.8	12.9	10.8	11.8	14.5	16.1	19.3	21.4	19.9
	수리	41.7	42.5	41.7	44.1	47.5	42.7	42.9	40.5	36.9	38.1
해상 경비	척	742	733	720	745	785	867	776	637	733	763
	일	11,839	12,846	12,459	10,462	12,120	13,527	13,111	12,784	14,754	16,615
해상 훈 련	중	35	37	38	50	47	34	37	30	30	25
	회	1,235	804	1,014	599	521	1,066	1,104	235	174	194
	척	1,729	1,264	1,521	1,072	1,019	1,536	1,592	529	444	440
	일	2,346	1,980	2,217	2,110	1,949	3,144	1,950	1,321	1,188	1,377
대간첩 작전/ 훈련	회	420	181	414	87						
	척	494	288	414	87						
	일	417	163	206	85						
대잠 훈 련	회	2 (8)	?	1 (5)	(4)	(2)	(4)	(3)	(8)	(9)	(7)
	척	17 (35-8)	?	8 (45-8)	(24-20)	(16-8)	(40-19)	(32-17)	(44-11)	(45-19)	(41-22)
소해/ 기뢰 부설	회	7	3 (3)	7	3 (1)	3 (4)	7	6 (2)	7 (1)	7 (6)	3 (16)
	척	30	13 (13-?)	29	20 (6-2)	10 (23-?)	31	37 (14-3)	34 (11-1)	7 (43-2)	9 (34-?)
상 륙	회	5 (1)	5	4 (1)	4 (1)	5 (2)	3 (3)	3 (2)	2 (3)	5 (2)	6 (1)
	척	23 (1-1)	19	15 (11-12)	14 (11-17)	24 (18-7)	3 (27-20)	10 (16-12)	12 (27-28)	14 (14-8)	26 (3-2)

낮아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출동기간과 수리기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전체의 80% 안팎을 차지했으며, 그밖에 대기기간의 비율은 10~20%였고, 훈련기간은 3~7%였다. 해상경비에 참가한 함정의 척수는 1970

년대 중반에 867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해상경비를 한 일수는 척수와는 달리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아져 1970년대 초반보다 약 1/3가량 증가했다.

해상훈련과 관련된 수치는 1970년대 전반보다 후반에 더 적어지고 있다.⁵⁸⁾ 대잠전훈련은 거의 대부분 한미 연합훈련으로 전개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전반기의 4배 그리고 중엽의 2배로 나타났다. 소해훈련은 한국 해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았으나 횟수는 1970년대 내내 거의 비슷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상훈련은 11,146척이 6,946회를 실시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대잠훈련은 524척 이상의 함정이 57회를, 소해훈련은 364척 이상의 함정이 86회를, 그리고 상륙훈련은 395척의 함정이 58회 실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제2사관학교가 1975년 5월 10일 창설되었다가 1983년 8월 31일에 폐교되었다. 1987년에는 교육단이 교육사령부로 개편되었다. 해군사관학교는 여러 차례의 교과과정과 전공제도를 수정한 끝에 1984년부터 이학사, 공학사, 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여자 사관생도를 받아들였다. 1974년 5월 15일에는 8개의 기술학교가 종합기술학교로 통합되었으며, 1983년 9월 1일에는 병과학교가 창설되었다.

인사 분야를 보면, 장교 함상근무유지와 특수관리요원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이 198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을 먼저 들 수 있다. 전자는 해군장교라면 누구나 함상근무를 해야 하며, 나이가 육상근무를 할 때에도 언제든지 함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기간을 해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자는 정보관리, 연구개발, 관리정보, 교수, 특수정보의 업무에 종사

58) 훈련의 종류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1978년부터 해상훈련의 횟수, 참여한 함정의 척수, 훈련일일이 대폭 감소한 것은 훈련 자체의 감소가 아니라 『作戰經過報告書』의 작성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지면에서 밝히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간첩작전과 훈련의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1975년부터는 대간첩전훈련이 해상훈련의 통계항목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

하는 요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지속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1984년에는 장교 부특기 관리규정을 제정했으며, 1993년 8월에는 인사예고제를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선 교육 후 보직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문화 분야를 보면, 조경과 카누 같은 비인기 해양스포츠 종목에 대해 전국규모의 시합을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편성했다.⁵⁹⁾ 1989년 7월 11~12일에는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이, 1992년 10월 30~31일에는 함상토론회가, 그리고 1997년 2월 5일에는 바다사진공모전시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선양활동도 계속되었다. 1992년에 '충무공 정신'이 해군사관학교의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1974년부터는 충무공탄신기념 군악연주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1980년 1월 31일에는 거북선을 실물 크기로 복원하여 해상에 전시했으며, 선령이 만기가 되자 1999년 10월 다시 건조했다. 또한 1988년 8월 1일에는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이 신설되었으며,⁶⁰⁾ 1996년에는 충무공수련원이 신설되었다.

그밖에 이 시기의 주요 사건이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월되었던 백구부대는 9년(1965~73) 동안 총 60척의 수송함(LST 34, LSM 26)을 이용하여 462회의 수송활동을 했는데, 수송물동량은 285,000톤이었다.⁶¹⁾ 둘째, 해군낙도홍보단은 1969년부터 매년 활동해왔으며, 1999년에 해군낙도봉사단으로 개명되어 해양환경 보존활동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셋째, 1974년 2월 22일에 한산도 충무공사당을 참배한 훈련병들을

59) 해군참모총장배 조정대회는 1971년 8월 1일, 카누대회는 1986년 5월 27~30일, 모형함선 경연대회는 1991년 4월 28일에 처음 실시되었다. 한편, 아시아 요트경기대회 지원단은 1986년 2월 15일에, 올림픽 요트 지원사령부는 1986년 6월 13일에, 올림픽 지원단은 1986년 3월 10일에 조직되었다.

60)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은 1990년 8월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사용되었던 別黃字銃筒을 수중 발굴했다고 발표하여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1996년 6월에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어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해군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신안 앞바다의 宋元代 海底遺物을 발굴하고 인양하는데 참여했다.

61) 『백구부대사』(해군본부 작전참모부, 1976. 1)를 참조.

태운 YTL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넷째, 함상반란을 일으킨 중국 고속어뢰정이 1985년 3월 22일 군산 앞 하왕도 해상에서 구조를 요청했으며, 이튿날 중국 함정 3척이 영해를 침범하여 고속어뢰정의 반환을 무력으로 강요했다. 양국 사이에 군사·외교적 접촉이 있었으며, 그 결과 해군은 3월 28일에 중국고속어뢰정을 중국에 인계했다. 다섯째, 1999년 6월 15일에 북한어선 13척의 뒤를 따라 북한 어뢰정 3척의 호위를 받으며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을 한국 해군이 격퇴시킨 연평해전이 발발했다. 여섯째, 해군의 국제교류활동이 90년대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⁶²⁾

1971년부터 2000년까지는 명실상부한 연안해군이 건설되던 시기였다. 전력증강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무기와 함정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건조하며 또한 외국에서 도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력증강 활동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명백한 신형 한국산 함정의 시대가 1990년대에 달성되었다. 나아가 해군은 잠수함의 국내건조와 항공기(헬기와 초계기)의 도입으로 수중, 수상, 항공의 입체 전력도 구비할 수 있었다. 작전조직은 제1함대시대가 종료되고 해역사시대가 14년 지속되었다가 1986년부터 3개 함대와 작전사령부체제로 최종 확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전단과 잠수함전단 그리고 조함단과 군수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해상훈련 중 대잠훈련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잠수함의 미보유로 한미 연합작전으로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 보유로 독자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해역의 특징과 전란의 경험에 의해 소해훈련과 상륙훈련도 지속적으로 많이 실시되었다. 그밖에도 교육과 인사 분야에서 많은 변

62) 1993년에 해군 함정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으며, 1994년에는 순항분대가 일본을 최초로 방문했다. 한국 함정이 1990년부터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한·러 해상사고방지협정이 체결되었고, 1997년부터는 한·미 해군대학 해군회의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2000년에는 한국 함정이 서태평양 잠수함 구조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화가 있었으며, 해양스포츠의 활성화와 국가주관 국제체육행사를 지원했고, 다른 문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해군이 바다로부터 오는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영해나 연안 주변에서 입체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연안해군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다.

4. 지역해군 건설기(2000~현재)

해군은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전력증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표 10>⁶³⁾을 통해 알 수 있다.

해군은 중형 고속정(PKM)과 소해함(MSC) 및 구식 상륙함(LST와 LSM)을 2001년, 2003년, 2005년에 각각 모두 퇴역시켰다. 반대로 KDX-II 사업에 의해 한국형구축함(DDH)을 2003년부터 매년 1척씩 건조했으며, 2008년 후반기에는 KDX-III 사업에 의해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구축함(DDG)과 차세대 유도탄고속함(PKG)을 각각 1척씩 확보할 예정이다. 그 결과 2008년 말 해군은 80척(잠수함 11, 유도탄헬기구축함 10, 호위함 9, 초계함 28, 유도탄고속함 1, 소해·기뢰함 10, 상륙함 5, 구조함 3, 군수지원함 3)의 함정세력을 보유할 예정이다.⁶⁴⁾

63) <표 10>을 작성할 때 참고한 문헌은 황재연·김정환, 『현대 해군의 수상전투함』(서울: 군사연구, 2007. 10); 황재연, 『한국해군 잠수함』(서울: 군사연구, 2007. 4); 김민석·양욱·유용원 지음, 『신의 방패 이지스: 대양해군의 시대를 열다』(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2)이다. 또한 인터넷의 웹문서도 많이 참고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http://digitalangelmaster.wordpress.com/2008/03/29>
<http://k.daum.net/qna/openknowledge>
<http://blog.theple.com/jjm6440>
<http://cafe.naver.com/ArticlePrint.nhn>
 그밖에도 국내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도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64) 『海軍의 艦艇 名稱, 어떻게 제정되는가?』(대한민국 해군, 2007. 12). 또한, Jane's *Fighting Ships 2006-2007* 따르면, 해군은 187척(잠수정 11, 잠수함 9, 구축함 7, 호

<표 10> 2000년 이후 해군의 함정세력 증강활동

연도	인 수	퇴 역	기 타
2001	T-209 SS 1	PKM 32	해군 무기체계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2002			국산 어뢰(백상어, 청상어) 시사
2003	KDX-II 1, MSH 1	돌고래 1, MSC 전 함정	
2004	KDX-II 1, MSH 1		국산 어뢰(백상어, 청상어) 시사
2005	KDX-II 1	구식 상륙함 전 함정	
2006	KDX-II 1		
2007	LPX 1, KDX-II 1, AIP T-214 SS 1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시사
2008	KDX-II 1 (KDX-III 1, PKG 1, AIP T-214 SS 1)		

이 기간은 비록 8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이 보인다. 첫째, 2007년 말기에 작전사령부가 진해에서 부산 3함대의 위치로 그리고 제3함대가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되었다. 둘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성부대가 아프간 항구적자유작전에서 수송지원임무를 수행했는데, 17회에 걸쳐 5,500톤의 물자를 수송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해군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파견된 동티모르 상륙수부대에 대한 수송지원임무를 수행했으며, 2005년 1월에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지진해일복구작업에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지원하기도 했다(濟衆部隊). 셋째, 2002한·일월드컵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제2연평해

위함 9, 초계함 28, 고속정 88, 소해함 3, 기뢰부설함 1, 상륙함(LST·LCU·LCM·LCF) 28, 군수지원함 3)을 보유하고 있다. 두 자료의 수치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함정세력으로 간주하는 함정과 주정의 차이와 정보의 부정확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군이 발간한 서적을 정확한 자료로 간주하였다.

전⁶⁵⁾이 발발했다. 이 때 한국 해군은 전사 6명, 부상 18명, 고속정 1척 침몰이라는 피해를 그리고 북한 해군은 사상자 30명과 함정 1척 반파의 피해를 당했다. 넷째, 한국 해군은 호주(2002년 2월부터 18개월마다 정례 개최), 말레이시아(2001년 3월 13일), 싱가포르(2001년 3월 15일)와 해군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 11월 25~26일에는 일본자위대 음악축제에 해군악대가 초청되어 연주하기도 했다. 다섯째, 한국 해군은 2001년에 서태평양 기뢰대항전훈련을 참관했다가 2002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 그리고 2007년부터는 조난잠수함 탐색 및 구조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7년부터는 한국해군이 러시아해군 및 일본해군과 별도의 수색 및 구조훈련과 조난선 구조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7년 9월 22일에는 순항훈련함대가 몸바이 앞 해상에서 인도 함정들과 연합기회훈련을 하기도 했다. 여섯째, 2001년부터 여자사관후보생을 입대시켜 임관시키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여자부사관후보생을 입대시키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일곱째, 대학과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경남대학교 진해학부를 2003년에 설치했으며, 2005년부터 C4I체계와 KDX-III 전투체계개념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볼 때, 해군은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정전력의 경우, 노후한 인수 함정들이 거의 대부분 퇴역되었다. 그 대신 자체의 항공력과 유도탄능력 및 첨단지휘체계를 구비한 국내건조 최신형 함정들이 주력을 이루었다. 또한 해군의 국제 교류, 타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횟수가 많아지고, 그 대상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인도양 연안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방목표는 1994년에 위협의 대상을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그리고 임무 중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65) 국방부는 원래 西海交戰으로 불렀다가 2008년 4월에 제2연평해전으로 개명하고, 해군주관 추모식도 국가 행사로 승격시켰다.

것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⁶⁶⁾ 해군이 2000년대에 이처럼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수정된 국방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해군은 자국의 연안을 방어하는 연안해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원양을 순항하고 원양에서 작전하는 대양해군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해군⁶⁷⁾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5. 맺 음 말: 대양해군 건설을 위하여

광복 직후부터 시작된 해군의 창군활동은 약 3개월 후인 1945년 11월 11일에 해방병단의 창설이라는 결실을 보았으며, 해방병단은 정부수립 후 정규 해군이 되었다. 그러나 체제를 채 갖추기도 전에 6·25전쟁을 맞이한 해군은 장병들의 헌신과 미국 해군의 도움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놀라운 전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해군은 휴전 후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자 체제를 정비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따라서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약 25년간은 해군의 체제가 정립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자주국방을 위한 거국적 움직임은 해군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근대화의 기치 아래 이룩한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은 해군무기와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시작 단계인 1970년대에는 소형 함정과 주정이 주로 건조되었으며,

66) 한용섭 외, "한국 국방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건군 50년 한국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상(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98), pp. 258-9. 이육교, "한·일 해군 발전사 비교연구-해양전략 구성요소 중심으로," 해군대학졸업논문, 2002. 11, pp. 15-16에서 재인용.

67) 그밖에도 지역해군은 유엔 해양법 회의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200마일로 선언된 것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었으며, 3,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을 주력함으로 간주한다. 한편, 한국 해군의 경우에는 KDX-III 사업에 의해 건조된 것으로서 이지스함으로도 불리는 세종대왕함(DDG)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지역해군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황재연·김정환, 『현대 해군의 수상전투함』(서울: 군사연구, 2007. 10), pp. 22-23.

1980년대에는 이러한 초기 경험과 지속적인 국력성장 덕분에 호위함은 물론 구축함과 잠수함까지 건조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며, 이 노력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 1단계 한국형구축함사업(KDX-I)의 종료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인수함 시대가 종료되고, 그 대신 국내 건조함의 시대와 수중·수상·항공의 입체 전력을 보유한 해군의 시대가 2000년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 기간에는 조직, 인사, 교육, 작전훈련,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어떤 국가의 해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타국 해군과 국제교류와 연합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해군은 대북 경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1971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안해군이 건설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국내건조 함정의 질적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2단계와 3단계 한국형구축함사업(KDX-II, III), 2단계 한국형잠수함사업(KSS-II), 차세대 고속정사업(PKX)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형 상륙함(LPX)과 한국형소해정과 군수지원함도 건조되고 있고, 또한 차세대 잠수함사업(SSX)도 추진되고 있다. 그밖에도 외국 해군과의 국제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연합훈련의 수가 증가하고 대상국도 다변화되고 있고, 또한 활동해역도 인도양까지 확대되고 있다. 2001년 이후의 시기는 해군이 연안해군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되 원양작전도 할 수 있는 지역해군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건설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⁶⁸⁾ 해군도 대양해군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은

68) “한국 해군이 … 대양해군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기점은 … 209잠수함 장보고함이 93년에 실전 배치된 때이다”(http://digitalangelmaster.eordpress.com/ 2008년 3월 29일자 기사), “KDX-II는 대한민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는 첫 번째 플랫폼”(http://kdaum.net/nms/service/news/ 2006년 4월 21일자 Olivier 21의 기사), “대양해군 완성 향한 차기 호위함 건조”(http://www.kfl.or.kr/02media/ 자유공론 2006년 7월 10일자 기사), “중국, ‘한국 대양해군으로 전화’ 경계심”(http://www.hani.co.kr/

인상을 주는 행동을 했다.⁶⁹⁾ 그러나 해군은 이지스 전투체계 운용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2007), 그 교육훈련장과 종합군수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며(2008), 다른 함정들(LPH·PKX·FFX·KDX-I·KDX-II)의 전투체계 교육훈련장을 2010~12년에 확보할 예정이고, 2016년에는 신규 혹은 차기 전투체계 교육훈련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해군이 대양해군을 1990년대 중반부터 언급하기 시작했더라도⁷⁰⁾ 해군이 지역해군의 체계조차 아직 완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장차 보유해야 할 해군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그 예로 대륙적 해군과 해양적 해군이 조화를 이룬 均衡海軍,⁷¹⁾ 해양적 전략과 대륙적 전략을 합친 狀況適應的 戰略을 보유한 해군,⁷²⁾ 1,000해리까지 포함되는 근양을 지리전략지역(혹은 책임해역)으로 보유한 近洋海軍(Offshore Navy 혹은 Green Navy)⁷³⁾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양해군의 개념 속에는 연안해군과 연안방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⁷⁴⁾ 그렇기 때문에 균형·상황적응적·근해 등은 대양해군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popups/ 한겨레 2006년 11월 24일자 기사) 등을 참조.

69) “선진 대양해군이라는 미래전략과 연계 제주 해군기지 반드시 필요”(http://www.newsvision.co.kr/news/ 뉴스비평 2007년 3월 27일자 해군참모총장 인터뷰 기사)를 참조.

70) 1995년 4월 1일 안병태 참모총장의 취임사에서 대양해군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되었다. 국방일보 2004년 11월 1일자 기사(http://kookbang.dema.mil.kr/kdd/)와 동아닷컴 2008년 2월 4일자 기사(http://www.donga.com/docs/magazine/)를 참조.

71) 姜永五, “한국 海軍力 분석,” *Strategy 21*, 2001년 7호(봄·여름호), p. 153. 한편 그는 해양전투단과 연안전투단을 동시에 보유한 해군을 균형해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2007년 5월 28일자 인터뷰 기사(http://news.chosun.com/svc/news/www/).

72) 노경수, “21世紀 韓國의 安保와 海軍의 役割,” 『새로운 해양질서와 21세기 해군의 임무』, 제4회 함상토론회 발표문집(해군본부, 1995), p. 273.

73) 황병무, “주변국 해군력과 해군의 현대화 문제,” 『신 해양질서와 해군의 진로』, 제6회 함상토론회 발표문집(해군본부, 1997), pp. 232-233.

74) 미국 해군은 자국 연안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함대를 배치하고 또한 2함대에 제1 강력한 전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균형·상황적응적·근해 등의 수식어가 없이 세계해군으로 간주되고 있다.

없는 용어들이다. 대양해군은 연안방어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연안방어를 근간으로 원양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양해군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다. “대양에서 1개월간 작전할 수 있는 함대”를 보유한 해군이 대양해군이라는 주장이 있는데,⁷⁵⁾ 대양에서의 작전과 국제관계의 복잡미묘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1개월간의 기간설정은 그 근거가 모호하다. 대양해군은 국익을 보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해군을 뜻하며, 따라서 그 기간은 그보다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대양해군의 건설은 단순히 함정세력과 헬기 위주의 항공세력 보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양에서 대공방어와 항공공격이 가능한 자체 항공력을 보유해야만 하며, 또한 타국으로부터 군수지원과 기지 등을 도움받을 수 있는 친한적 국제관계와 군사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도 먼저 얻어야만 한다. 대양해군의 건설은 해군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우며, 국가전략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해군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군이 국력의 집합체로서 국력 신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한국 해군의 60년사와 미래 발전도 이러한 사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8. 5. 2, 심사수정일 : 2008. 7. 29, 게재확정일 : 2008. 8. 8)

주제어 : 해군 역사, 해군 창설, 해군 발전, 체제정립, 연안해군, 지역해군, 대양해군, 세계해군, 근해해군, 해방병단

75) 강영오 제독(예)의 조선일보 1997년 5월 28일자 인터뷰 기사(<http://news.chosun.com/svc/news/www/>).

<ABSTRACT>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Kim, Joo-sik

I wrote this article in order to review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al history of sixty years according to 4 types of navy : coastal navy, regional navy, ocean-going navy or blue-water navy, and global navy.

The founding of the Navy began shortly after Independence Day and three months later *Haebangbyeongdan* (Coast Guard) was founded on November 11, 1945. This *Haebangbyeongdan* became a regular navy after the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Before the Navy had organized its system,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Nevertheless the Navy tried its best to do many activities and achieved brilliant results thanks to self-sacrifice of Korean naval officers and men and the help of the US Navy.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the Navy devoted all its energies to recovering the scar of the war and improving systems. As a result, it is said that for 25 years from 1945 to 1970 was the period when navy established its systems.

The nationwide movement for self-reliance of national defense which occurred from the 1970s played a decisive role in naval development. We could construct naval ships and produce naval weapons thank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improv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We construct small ships and boats at an early stage of the 1970s. In the 1980s, we could plan to construct destroyers and

submarines as well as escort ships thanks to previous experience and continued buildup of national strength. In the 1990s, these efforts produced detailed results that Project KDX-I was completed. Consequently, we ceased to use the ships which had been used in the US Navy in the World War II any more. Instead, the age of navy when ships were constructed in domestic shipyards and possessed of three dimensional force (underwater-surface-air) began in 2000s. In the period, our navy has developed in organization, administration, training and education, operations, and culture. So it is by no means inferior to other navies now and it began to interchange and did combined operations with other navies. But the Navy still devoted itself to keeping an eye on North Korea. So, it is said that the period from 1971 to 2000 was that of the construction of coastal navy.

After 2000, ships constructed in our domestic shipyards have been greatly improved in quality. The Projects KDX-II, KDX-III, KSS-II, and PKX have been developed. LPX, Korean type mine sweeper and supply ships have been constructed and SSX has been carried out. In addition, the Navy has been interchanging with other navies actively, increased the number of combined drills, and widened its field of activities to the Indian Sea. Since 2001, the Navy has been changing to regional navy which mainly do the job in the coastal area but can operate in the ocean.

The ROK has no choice but to have ocean-going navy because of geographic, military and human social conditions. Ocean-going navy means that it can operate in the ocean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and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The construction of ocean-going navy is not simply possessed of the force of naval vessels and air force mainly composed of helicopters. It has to possess its own air force which can do anti-aircraft defense and air-attack and it has to maintain and expand pro-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military-diplomatic relation. And it need to win previously broad support of people in the country. The Navy's effort will not construct the ocean-going navy. The construction must be carried

forward as the national strategic project. This is the direction on the ROK Navy's future development course.

Key Words : Naval History, Foundation of the ROK Navy, Development of the ROK Navy, Organization of Navy's System, Coastal Navy, Regional Navy, Ocean-going Navy, Global Navy, Green Navy, Offshore Navy, *Haebangbyeongdan*